

도매
3층:

그릇도매상가 C535

Monthly Seoul

15

목포작당

1998 1 2



특집 | 98년 서울시정

르포 | 가출청소년의 꿈과 애환

주제탐구 | 서울의 박물관

거리는 온통 붉은 벽보 천지

손정목 |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폭풍”이라는 암호를 신호로 38선 전역에서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우리 국군은 밀리고 또 밀릴 수밖에 없었다. 저쪽은 2년여에 걸친 충분한 사전준비가 있었다. 장병은 훈련이 잘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수도 월등하게 많았다. 장비에 있어서도 저쪽은 소련제 전차와 비행기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쪽은 대포뿐이었다. 대포도 성능이 약해 아무리 쏘아도 전차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기술한 글을 읽을 수 있었다.

“국경(38선) 전역에서 기습공격을 받았다. 적은 전차·중포·비행기를 가진 큰 병력인데 비해 이쪽은 전차·비행기가 한 대도 없다. 적의 전차를 향해 아무리 대포를 쏘아대도 끄덕도 하지 않았다. 전선과의 연락은 두절되고 전반적인 전황은 파악할 수 없다. 전 해져 오는 연락은 모두가 패전과 구원요구뿐이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패전·퇴각의 상황이 서울시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에게는 일절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전달되어 있었다.

개성에 이어 의정부가 함락되고 적군이

창동·우이동을 거쳐 미아리로 접근하고 있던 중에도 대한민국 중앙방송은 “적을 격퇴하고 있다”, “싸움에 이기고 있으니 서울시민은 조금도 동요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인민군 3일만에 서울점령

이승만 대통령 내외가 비서관 하나를 데리고 특별열차로 서울역을 떠난 것은 6월 27일 새벽 3시였다. 그날 새벽 4시에 국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전체 2백10명 국회의원 중 연락이 되어 모일 수 있었던 사람은 약 반수인 1백 여명이었다.

이 국회에 참석한 국방부장관 신성모, 참모총장 채병덕도 정확한 전황을 설명하지 않았다. 소란한 합성과 욕설이 오가는 가운데 “국회의원 전원은 1백만 애국시민과 더불어 수도를 사수한다”는 내용을 결의한다.

이 결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의장 신익희, 부의장 조봉암을 앞세운 몇몇 대표가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갔었다. 훨씬 앞서 주인이 떠나 버린 경무대는 한두 명의 경찰관이 빙집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이 보고를 들은 국회의원들은 소리 없이 흘어질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원을 거쳐 대전으로 옮겨간 것은 전쟁이 일어난 이틀 후인 6월 27일 오후의 일이다. 한강인도교와 철도교가 동시에 폭파된 것은 28일 오전 2시 15분 이었다. 인민군이 탱크를 앞세워 서울시내에 들어온 것은 28일 새벽이었다. 적군이 38도선에서 전쟁을 일으킨 지 만 3일만에 서울이 점령되어 버린 것이다.

전쟁이 일어났던 당시의 서울시민은 1백 50만을 약간 넘었고, 그 중의 10분의 1, 즉 15만명은 한강 남쪽인 영등포구에 살고 있었다. 한강 이북에 살고 있던 1백40만명 중에서 한강을 건너 피난을 간 사람은 약 40만 명이었다고 하며, 그 중의 80%는 광복 후 월남자들이었고 나머지의 20%, 약 8만명은 고급공무원·자본가·정치인, 그리고 군인·경찰관 가족이었다.

광복 후 월남자 수가 많았던 것은 그들이 공산정권의 실태를 이미 충분히 체험하였으므로 “도망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 있다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울이 수복되는 9월 28일까지 공산정권 3개월간을 체험하게 된 약 1백만명 정도의 서울시민 대다수는 “설마 생존이야 위협받을



서울로 밀어닥친 북괴군. 전쟁을 일으킨 지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해 버렸다.

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순식간에 서울을 점령하는데 성공한 북한정부는 바로 서울시청을 점령하고 공산주의에 의한 통치를 시작한다. 그때까지 걸려 있던 '서울시청'이라는 간판이 내려지고 '서울시 임시 인민위원회'라는 간판이 걸렸다. 각 구청은 각 구 임시 인민위원회가 되고 각 동사무소에도 ○○동 인민위원회라고 썩 어진 흰 종이간판이 붙여졌다. 여기서 '임시 인민위원회'라고 한 것은 선거에 의한 정식 인민위원회가 아니고 선거를 치르기 전의 '임시'라는 뜻이었다.

인민위원회 통치하에 놓인 서울시

서울시 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임해 온 것은 이북정권의 사법상(법무부장관)을 지낸 이승엽(李承燁)이었다. 그는 1905년에 경기도 부천에서 뱃사공의 아들로 태어났

다. 인천상업학교 재학 중에 3.1운동에 참가 했다가 퇴학당한 후 서울과 일본의 여러 학교를 다니지만 졸업은 못하고 중퇴만 한 인물이었다. 1923년경에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한 후 줄곧 공산주의자로 활동하였다.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약 7년간 형무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1945년 광복이 되자 박현영(朴憲冰)등과 더불어 조선공산당 재건에 참여, 1946년에 남조선노동당 중앙위원, 1948년 7월에 월북하여 그해 9월, 북한 인민공화국 제1차 내각의 사법상(司法相)이 되었으며 1949년에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역임한 인물이다.

인민군에 의하여 점령되고 인민위원회 통치에 들어간 서울은 당장에 빨간색으로 변한다. 중심부와 변두리를 가릴 것 없이 거리의 모든 벽면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붉은 벽보가 차지했다. '인민해방군 만세!', '김일

성 장군 만세!', '김책 장군 만세!', '서울인민위원회 위원장 이승엽 동무 환영 만세!', '최용건 장군 환영 만세!' 등등의 벽보였다.

시내 중심가에 들어가면 모임을 알리는 벽보도 눈에 띠었다. '민주조선 법률가 동맹회합', '민주조선 미술가 동맹모임' 등등의 직능단체끼리의 모임, 그리고 '무참히 학살된 제주도민 유가족 모임', '애국·민주 ○○ 군민 모임' 등 지역별 모임의 벽보도 눈에 띠었다. 붉은 완장을 두른 청장년들은 불심검문을 했다. 수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 자에게는 의용군으로 지명하라고 권유하였다. 말이 권유이지 사실상 강제연행이었다.

삼삼오오 폐를 지어 다니는 인민군 장교들, 특히 여자군인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간혹 오산 등지에서 잡혀온 미군포로들의 행렬, 그리고 신부·수녀들 특히 외국인 신부·수녀들이 잡혀와 폐를 지어 끌려가는 광



위에서부터.

▷집단학살현장에서 오열하는 여인.

▷미포방면에서 중앙청을 향해 진격하는 국군.

▷1950년 9월 29일 중앙청내 국회의사당에서 가진 한도식
(단상에 서있는 이가 이승만 대통령, 이대통령 원쪽 첫번
째가 액아대장군, 두번째는 무효 주한 미 대사).



경을 본 일도 있다.

그러나 거리를 오가는 사람의 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젊은 사람들은 남녀 가릴 것 없이 집안에 꼭꼭 숨어 버렸고 극도의 식량부족 때문에 보행도 삼갈 수밖에 없었다. 특별히 왔다 갔다 해야 할 볼일도 없었을 것이다.

당시의 서울거리에서 그래도 활기를 띠는 곳이 있었다. 동대문시장이었다. 시민 모두가 기아선상을 헤매었으니 식량을 구해 시장에 나왔고 동대문시장에 가면 그래도 먹을거리를 구할 수 있었다.

8월 15일 광복절은 인민위원회가 주최한 성대한 기념행사가 거행되었다.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서울은 죽음의 도시로 변해 버린다. 식량부족은 극에 달하고 있었고 경계가 삼엄해져서 거리를 오가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골목 입구에는 의례히 붉은 완장을 두른 2, 3명 청년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청년동맹, 부녀동맹 등에 가입하는 자가 늘어났다. 그들은 서울 수복 후에 이른바 부역자(附逆者)로 치부되어 적지 않은 곤욕을 치르게 된다.

공산군 점령초기에는 시내 여러 곳에서 이른바 '인민재판'이라는 것이 전개되었다고 하는데 필자는 그것을 한번도 본 일이 없



인민군에 의하여 점령되고 인민위원회 통치에 들어간 서울은 당장에 짙간색으로 변한다.

중심부와 번두리를 가릴 것 없이 거리의 모든 벽면은 공산주의를 친양하는 붉은 벽보가 차지했다.

거리로 오가는 사람들의 수도 눈에 띠게 줄었다.

젊은 사람들은 남녀 가릴 것 없이 꼭꼭 숨어버렸고 극도의 식량부족 때문에 보행을 삼갈 수밖에 없었다.

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동장, 파출소 소장, 판사·검사들이 끌려와 그 죄상이라는 것 이 낭독되고 “인민의 적이니 총살형이 마땅하다”고 하면 모인 군중이 “옳소”라는 강요된 구호와 박수를 치고 그들 군중이 보는 앞에서 총살형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인민재판은 얼마 안가서 없어진다. 평이 좋지 않고 오히려 민심이 흥흉해지는 원인이 된다고 판단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남북길, 눈물의 미아리고개

공보처 통계국이 1953년 7월 27일 현재로 집계한 <6.25 사변 종합피해조사표>에 실린 ‘민간인 인명 피해상황표’에 의하면 서울에서만 9만5천명 이상이 사망·화살·납치·행방 불명이 되었다고 집계되어 있다. 학살 8천8백명을 보통의 사망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집계한 점에 이 전쟁의 잔학상을 알게 해 준다. 검사·경찰관·형무관, 군 장교로 부대에서 낙오된 자, 우익 청년단장과 대원 그리고 동회장과 동 직원들까지도 인민재판, 기타의 방법으로 학살된 것이다.

행방불명자가 3만6천62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들 행방불명자 중에는 인민위원회에 불어 그 심부름을 하다가 월북한 자도 있었고 인민군(의용군)으로 강제 연행되어 간 자도 있었다.

행방불명자중에는 이북에 납치되어간 인물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가 보관하고 있는 <6.25 사변 피납치 인사 명부>에 의하면 서울에서만 1천5백명에 달하는 인사가 이북으로 납치되어 갔다고 집계되어 있다. 필자는 여러 구(區)의 구지(區誌)를 만들면서 이 피납자 명부를 되풀이 되풀이 보아야 했다. 그리고 그 숱한 이름 중에서 필자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정치가·대학교수·의사·변호사·판사·검사·기업가·언론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이름들을 통해 한국전쟁이 끼친 이 나라의 인재 손실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한 예로 종로구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승만·김구와 더불어 광복 전후 이 나라를 영도한 3대 거두 중의 한 분이었던 김규식 박사를 비롯하여 제헌 국회의원 이상의 정치인 17명, 서울대학교 총장(최규동)·고려대학교 총장(현상운)을 비롯하여 중·고등학교 교장 이상 교육자 11명, 신문사 편집국장·주필 이상의 언론인 6명, 이 나라를 대표하는 문필가 3명(춘원 이광수, 수필가 김진섭, 평론가 유자후), 현직 판사·검사 17명, 변호사 32명, 의사 11명, 저명한 목사 4명, 중앙청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34명, 동회장 7명, 3.1 운동 33인 대표의 하나인 최린(崔麟)을 비롯하여 중추원 참의 이상의 친일파 7명.

전국 변호사의 총수가 겨우 1백명을 넘을까 말까하는 시대에 32명의 변호사가 종로구에서만 납치되어 갔다는 사실에 치가 떨리는 아픔을 느끼는 것이다.

그들 납치인사들의 북송이 시작된 것은 UN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서울을 향해서 침공해 온 1950년 9월 중순에서 하순에 걸쳐서였다. 그런데 이들을 북으로 데리고 간 주된 행로가 ‘돈암동 - 미아리고개 - 우이동 - 의정부 -’였다.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노래는 6.25전쟁이 끝나기 전인 1951년 말 반야월(半夜月)이 작사하고 이재호(李在鎬)가 작곡하였으며 가수 이해연이 불러온 나라안에 퍼졌다. ‘미아리 눈물고개 임이 떠난 이별고개’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약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모든 국민의 심금을 울린다.

서울시 인민위원장을 지낸 이승엽이 간첩죄라는 죄명으로 이북정권에 의해 처형된 것은 1953년 8월이었다. 박현영의 처형보다 3년이나 앞선, 숙청 제1호였다.

국군과 UN군이 서울을 탈환한 것은 9월 28일이었다. 인천상륙작전 후 2주일, 서울이 적에게 점령된 지 만 90일만의 일이었다. 중앙청내에 있던 국회의사당에서 환도식(還都式)이 거행된 것은 9월 29일 정오였다. 서울시내 모든 교회당의 종이 평화를 축복하면서 울리고 있었다. ~